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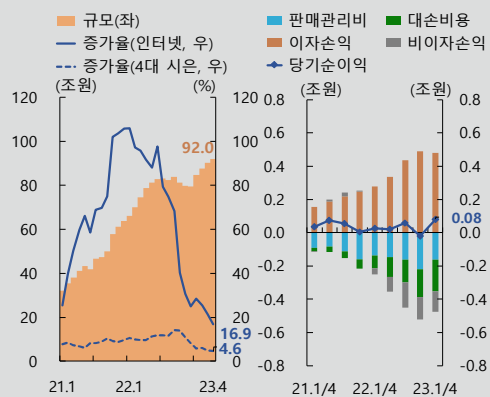
국내 인터넷전문은행²⁾은 2017년 출범 이후 고객 수가 560만명(17년말)에서 2022년말 3,43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비대면채널의 편의성 및 비용 절감에 따른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에 기여하였으나,³⁾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 사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일반 현황

2023년 4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92.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하였다. 2021년 토스뱅크 출범 영향이 줄어들면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4대 시중은행(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대출이 총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⁴⁾

수익성 측면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대마진⁵⁾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 초기의 IT기술투자 비용, 대손비용 및 유가증권 관련 손실, 다변화되지 않은 수익기반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규모(23년 1/4분기중 800억원)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총자산순이익률(23년 1/4분기 0.51%)도 여타 시중은행(0.74%)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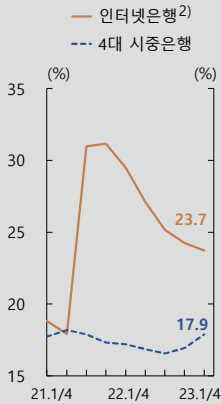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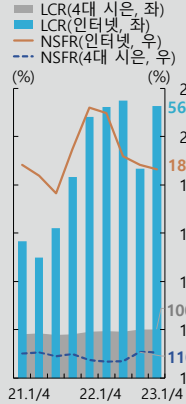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양호한 손실흡수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다.⁶⁾ 2023년 3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3.7%로 여타 4대 시중은행(17.9%) 및 최저규제(10.5%)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각각 563.7% 및 186.5%로 규제수준(LCR, 22년 10월~23년 6월 9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 1) 본고는 김자혜·홍준의·박서정(은행리스크팀)·임영주(인터넷전문은행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박장호(은행리스크팀장)·이장욱(인터넷전문은행팀장)이 검토하였다.
- 2) 2017년에는 케이뱅크(4월)와 카카오뱅크(7월)가, 2021년에는 토스뱅크(10월)가 은행업 신규 인가를 받고 출범하였다. 본고는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합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므로, 분석결과가 개별은행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다.
- 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김미루·오윤해·임상빈, 2021)를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여타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영업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경쟁 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2022).
- 4) 유가증권 증가율이 2022년 6월말 311.5%(전년동기대비)에서 2023년 4월말 6.1%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원화대출금은 같은 기간 동안 40% 안팎의 증가율을 지속하였다.
- 5) 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3월말 2.29%로 전년동기대비 0.65%포인트 상승하였다.
- 6) 이는 소매예금을 통한 조달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자기자본비율¹⁾



유동성 규제비율¹⁾



주: 1) 기말 기준(LCR은 평잔 기준)
 2) 21년중 신규 은행 출범, 기존 은행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큰 폭 상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금 조달·운용 상황 점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구조를 보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측면에서는 예금 비중이, 운용 측면에서는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를 중심으로 수신예금의 안정성과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자금 조달·운용 구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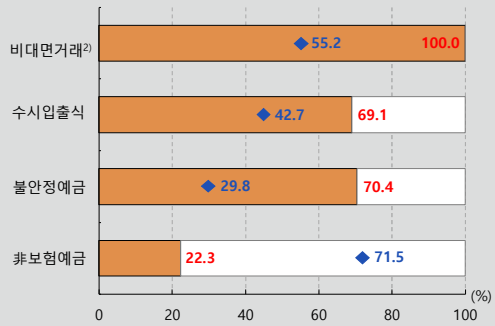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및 예치금	6.9 (5.8)	수시입출식예금	59.6 (28.0)
유가증권	32.6 (18.1)	기타 저축성예금	27.7 (36.2)
대출금	55.9 (62.6)	시장성수신	1.3 (6.6)
유무형 고정자산	0.4 (0.8)	기타부채	1.6 (22.9)
기타자산	4.2 (12.7)	자본금	9.8 (6.3)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비중
 2) () 내는 4대 시중은행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신예금의 안정성

인터넷전문은행은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조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인터넷 기반 은행이라는 태생적 특성상 모든 예금이 비대면 예금인 가운데, 수시입출식예금 비중(총예금의 69.1%)과 비결제 기준 불안정예금⁷⁾ 비중(70.4%)이 여타 4대 시중은행(각각 42.7% 및 29.8%)에 비해 높아 수신예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이 소액·소매 예금으로 총예금의 77.7%가 예금보험 대상이고 非보험예금⁸⁾ 비중은 22.3%에 불과하다는 점은 자금 안정성에 대한 예금자들의 우려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의 안정성 평가 지표¹⁾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예금 대비 비중 (◆는 4대 시중은행의 값을 의미)
 2)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CD/ATM 거래의 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대출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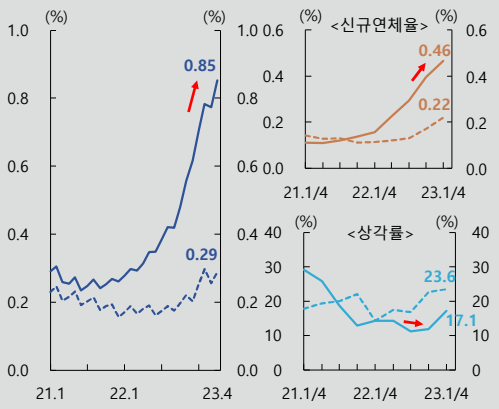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39.7%, 2023년 4월말)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은 여타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0.85%로 202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7) LCR 규제 체계는 소매예금 중 전액 부보 대상이고 급여자통예치계좌 등 거래계좌에 연계되어 있거나, 예금주가 은행과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인 예금의 경우 안정예금으로 분류하여 5%의 이탈률을, 그 외 소매예금은 불안정예금으로 1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8) 부보 예금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비부보예금을 포함한다(이하는 2023년 3월말 非보험예금 규모, 예금보험공사).

부보예금		비부보예금(B)	총예금	非보험예금(A + B)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A)			
61.4조원	17.4조원	0.2조원	78.9조원	17.6조원

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⁹⁾, 신규 은행 영업 초기에 취급한 대출의 연체 발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체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으로 연체채권의 대손상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대출 연체율¹²⁾ 신규연체율¹³⁾ 및 상각률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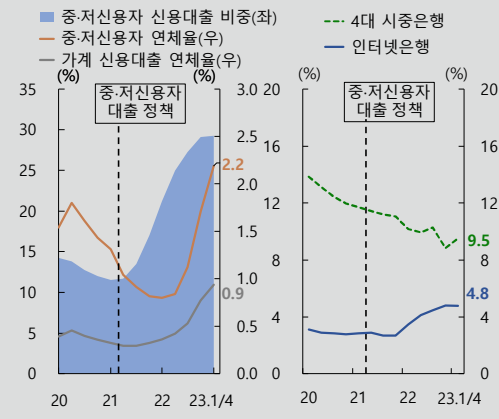


주: 1) 실선은 인터넷전문은행, 점선은 4대 시중은행을 의미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분기중 신규연체액/전기 원화대출 잔액
 4) 분기중 상각액/전기 연체채권 잔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포용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출 건전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가계 신용대출 기준) 대출 비중(96.1%)이 여타 4대 시중은행(80.2%)보다 높고 최근 중·저신용 및 저소득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중·저

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¹⁰⁾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¹⁾ 저소득³⁾ 차주 대출 비중
대출 비중 및 연체율²⁾



주: 1)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은행연합회, 개별 은행 자료

유가증권 연계 금리위험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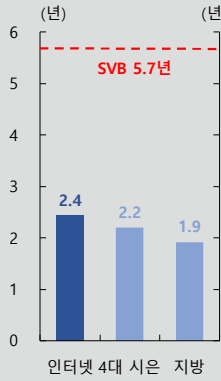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총자산의 32.6%, 4대 시중은행 18.1%)이 높은 상황에서, 수시 입출식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채권으로 운용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시 순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¹²⁾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유 유가증권의 평균 듀레이션¹³⁾을 시산해 본 결과 2023년 4월말 2.4년으로 여타 시중은행(1.9~2.2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SVB(5.7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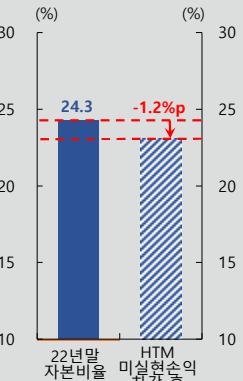
9)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5월)에 따라 감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023년말 30%를 상회하도록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를 각각 목표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0) 다만 혁신 기반 포용금융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연체율이 대략 3% 수준이다.
 11) 본고에서의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으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12) 최근 파산한 미국 SVB의 경우 저원가성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과도한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확대되었다.
 13) 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채권의 실효만기를 의미한다.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실은 총 자기자본의 8.7%이고, 만기보유증권(HTM, Held to Maturity)의 만기 이전 매도시 예상손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자본비율은 1.2%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가증권 평균 듀레이션¹⁾



채권평균손실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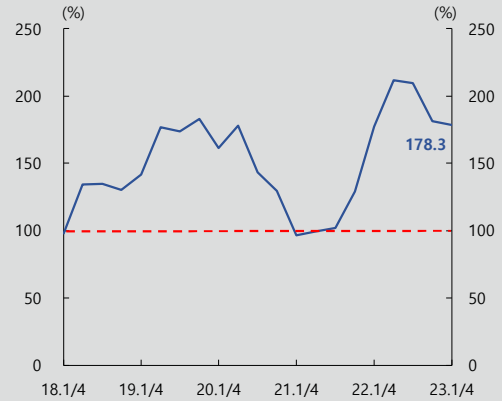


주: 1) 2023년 4월말 기준
 2) 2022년중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만기보유증권(HTM)의 미실현손실을 반영한 자기자본비율 변동분(매도가능증권 미실현손실은 22년말 자기자본비율에 기 반영)
 자료: 에탁결제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개별 은행 자료

예금 이탈 대응력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단기간에 예금이 급속히 이탈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유동성자산 처분을 통해 대응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非보험예금 대비 고유동성자산¹⁴⁾ 비율을 산출하였다. 2023년 3월말 동 비율은 178.3%로 작년 하반기 가 파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非보험예금이 전액 이탈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활용하여 예금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非보험예금 대비 원화 고유동성자산¹⁾ 비율



주: 1)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및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국 SVB 등과 같은 대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위기 시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탈이 용이한 비대면 예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의 예금을 적극 확보¹⁵⁾하는 등 수신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자금 조달·운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의 상시적 점검이 긴요하다.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따른 본연의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부실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체채권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노력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4) LCR 분자의 구성 항목중 하나인 원화 고유동성자산(평잔)으로,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됨에 따라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만기보유증권 포함)의 미실현손실이 반영되어 있다.
 15) 예를 들어, 급여자동예치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등록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